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룩셈부르크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사도 5,12-16

화답송 | 시편 118(117),2-4.22-24.25-27ㄱㄴ(◎ 1)



(후렴) 주님은 좋은 분이요,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신앙고백 : 사도 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묵시 1,9-11ㄴ.12-13.17-1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송 |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0 예물준비 215 (217)
영성체 172 (176) 파견 134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이상영 바오로 영혼을 위하여
- 임달수 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임순남 엘리자벳의 영혼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민유미 카타리나
- 유요국, 박은이의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조혜나 마리안나
(김민경 소화테레사의 대녀) 축일/ 생일
- 이서안 치릴로
- 문홍빈 안셀모
- 이로잔 캐더린 - 영육건강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4월 27일	조소연	국민준	민덕미	장민우	김영숙	조성윤 한서희
5월 4일	장혜윤	송명근	박성현	김승연	유정옥	김수현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재속프란치스코회 바자회(Bazaar)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5년 5월 4일(일) 9:00 am ~ 4:00 pm

장소: 성 프란치스코의 집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5월 성사반 개강

어린이: <첫영성체반> / 학생·성인: <견진성사반>
(견진성사 대상: 2025년 3월 이전 세례성사 받으신 분)
교리일정·시간: 5/4, 5/11 5/18. AM.11:00-12:00.
첫영성체반(신부님): 코리안 오피스
견진반(수녀님): School 3A
첫영성체/견진성사 날짜: 5월 25일 청소년주일 미사 중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ME 부부 주말 피정

일시: 5월 24(토) 7pm ~ 26(월) 5pm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신청: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문의: 646-322-3484(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2025년 성소주일 행사

5월 11일 성소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사 중 안수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 참석에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Mother's Day 행사

5월 11일 주일 미사 후 꽃 증정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 세레반 첫 고해성사

2025년 부활 세레반 고해성사 예절 연습과 첫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레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일시: 5월 17일(토) 3:00-5:00 PM

모임 장소: کنھیوئیل

5월 성모의 밤 행사

일시: 5월 17일(토) 7:00 PM

장소: 대성전(위 성당)

주관: 성모회, 꾸리아

2025년 성탄 세레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레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osb@gmail.com)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본당 제의방 봉사자 구합니다!

본당 요청으로 미사 때마다 사용하는 모든 성작 관리 및 성작수건 세탁 봉사하실 분을 구합니다.

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 모집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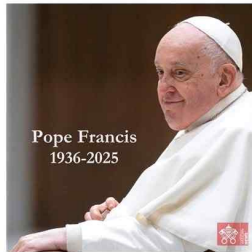


공지사항

기부

주보

R.I.P.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교황 프란치스코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남아 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옥토

WONJ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clearlas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주님 부활 대축일 :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 강론**"그리스도께서는 무덤 밖에 계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두 제자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요한 20,4 참조). 주님 부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 요한이 보여준 이 달음질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내적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으셨고, 더 이상 수의에 감싸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가두거나 과거의 영웅으로 만들거나 혹은 박물관 전시실의 조각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단하게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그분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일상 속에서, 무덤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 안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숨어 계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살아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각자가 베푸는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삶 안에 그분을 모시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는 결코 정적인 종교적 틀에 안주하거나 신앙의 위안 속에 평온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자들처럼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눈을 열어주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매일 그분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찾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하고 연약하며 상처 입은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어둠을 이기시며, 세상의 암흑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목표를 향해 달리며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필리 3,12-14 참조). 그러니 우리 이제 막달레나와 베드로, 요한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러 서둘러 나아가도록 합시다.

희년은 우리에게 이 희망의 선물을 새롭게 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그 안에 담고,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며, 우리 삶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이 희망에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이 세상의 허상에 묶어두거나 슬픔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리며 그분의 빛이 되는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다시 발견합시다. 그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여정을 비추게 합시다.

위대한 신학자 앙리 드 뤼박 추기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오늘날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교리적 책임』, 파리, 2010년, 276쪽).

이 “모든 것”,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희망으로 열어줍니다. 그분께서는 살아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님 부활 대축일에 저희가 청하는 선물은 이것입니다. 저희도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새로움 속에 살게 하소서. 오 하느님, 일상의 습관과 영혼의 피로와 마음의 환멸이 남긴 슬픈 먼지를 저희에게서 씻어주소서. 매일 아침 경이로움으로 눈뜨게 하시어, 그날의 고유한 빛깔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 아침은 유일무이하여 다른 어떤 아침과도 같지 않나이다. (...) 주님, 당신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아무것도 되풀이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낡음이 없습니다”(아드리아나 차리, 『기도하듯이』).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신앙의 경이로움 속에서, 평화와 해방에 대한 모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번역 이 정숙

(출처: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5-04/risorto-gesu.html>)